



WWW.ELLE.CO.KR

ELLE®

GIANNA  
JUN  
THE  
QUEEN OF  
ASIA

JOIN  
FIT CLUB

현실적인 <엘르>의  
헬스&뷰티 매뉴얼

FASHION  
TOY  
THEORY

패션은 어떻게  
장난감이 되었나

A-LIST  
ACCESSORIES

bucket bags, mini  
charms, knuckle rings,  
narrow scarves...

APRIL 2015 정가 6,000원



9 771228 079000 04  
ISSN 1228-0798

12 hair trends

'노푸'만이 해답일까?

ST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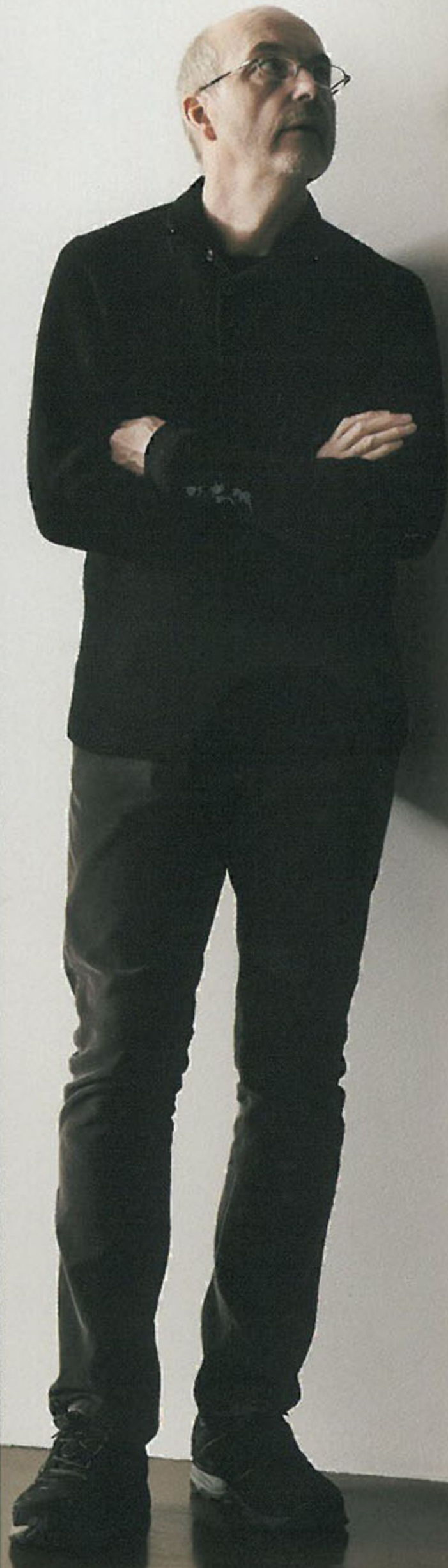
김무열&윤승아, 가인,  
타이거 JK&윤미래,  
김민희, 김지석,  
지현우, 변요한

STARS &  
glam

전지현, 콜린 퍼스, 케이티 페리까지, 스타들의 반짝이는 글램 라이프!



*seeing beyond with bill viola*



빌비올라  
내 영혼의 통곡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빌비올라가  
서울의 위태로운  
영혼들을 찾아왔다.

photographer 김상곤  
editor 김아름



'Soulless in Seoul.' 물질과 욕망으로 가득한 도시의 삶 속에서 이따금 머릿속을 맴돌던 단어다. 마크 로스코와 빌 비올라의 전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마치 위태로운 서울의 영혼들을 위한 응급처치처럼 느껴졌다. 색면 회화와 비디오아트, 매체는 다르지만 두 거장 모두 현대인에게 영적 치유의 은혜를 베푸니까. 마크 로스코는 세상을 떠났지만 다행히 빌 비올라는 아직 현세에 존재한다.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을 위해 그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 비디오아트의 태동기인 1970년대, 미술 대학에서 붓 대신 비디오 카메라를 잡어든 그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정신적, 심리적 의식의 흐름을 탐구해왔다. 미술을 공부하면서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그는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한때 일본에 머물며 불교에 심취하기도 했고, 달라이 라마를 만나 러 인도를 방문하는 등 실제 삶에서도 존재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시적인 내러티브의 영상 설치미술 작품들은 물질을 좇느라 내면의 통로를 잃어버린 많은 이들에게 각성과 치유, 정화를 경험하게 했다. 특히 지난해는 빌 비올라의 연대기에서 특별하게 기록될 만한 해였다. 파리 그랑 팔레에서 40여 년에 걸친 작품 세계의 정점을 찍는 대규모 개인전을 가졌으며, 런던 세인트 폴 성당에 영구 설치미술 작업 '순교자' 시리즈를 선보여 미술계의 시선을 모았다. 화제의 신작을 포함한 이번 한국 전시가 더욱 반갑게 느껴졌던 이유다.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빌 비올라는 미리 준비해 둔 짧은 글을 낭독했다.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들렸던 글의 내용은 1992년, LA 게티 센터 앞에서 한 노인의 죽음을 목격한 뒤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미술관에 들어가 디에릭 보우츠(Dieric Bouts)가 그린 '수태고지를 보며 위로받은 일화'를 담고 있었다. 자신의 예술 세계의 근원을 소개하는 빌 비올라다운 방법이었다(1990년대 경험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명확한 작품 해독을 갈구하는 기자들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 그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언어로 답했다. 그의 작품의 본질을 이해하는 결정적 힌트처럼 들렸던 말은 다음 문장이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고 무언가의 일부다."

다음날, 빌 비올라와 그의 아내 키라 페로브(Kira Perov)를 다시 만났다. 기자간담회 현장에서도 줄곧 남편의 옆을 지켰던 키라는 호주 출신의 전직 큐레이터로 빌 비올라의 '비전'을 작품으로 옮기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협업자다. 가까이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지극히 겸손하고 친절했다. 사진 촬영 후 포토그래퍼의 카메라를 들여다본 빌은 "빛과 어둠, 바로 내 작업과 같다!"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그의 웃음은 정말 아이 같았다). 갤러리 1층 카페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인터뷰. 채식주의자인 부부는 두유가 들어간 커피 음료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대신 홍차를 주문했다. 찻잔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을 만큼 짧은 시간이었으나, 어두운 전시장에서 유일한 빛으로 존재하는 그의 작품들이 더욱 긴 대화를 청하고 있었다.

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두 눈을 감고 명상하는 모습을 봤다 BV 지난해부터 계속 바빠서 명상할 시간을 갖기 어려워졌다. 내게 명상은 아주 중요하다. 내면의 문을 열어두기 위해서다. 잠깐이어도 된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거다. 짧지만 집중도 높은 시간이다.

'슬로모션'은 빌 비올라 작품의 특징이다. 일상에서도 느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전가 BV 그런 편이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나만의 공간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생각에 잠긴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바로 내 작품이 출발하는 곳이니깐. 휴식 중에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진짜'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스쳐 지나간 그 비전에 닿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바로 내 작품이 출발하는 곳이니깐. 때로는 스쳐 지나간 비전에 닿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느리게 움직이는 배우들의 몸짓과 표정이 일렁이는 감정의 파고를 만들어낸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어떻게 찾고, 어떤 방식으로 디렉션을 주는가 BV 할리우드 배우들과 일하지는 않는다(웃음). 연기를 배웠거나 극단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배우들이 많다. 캐스팅 보드를 보고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는 데는 키라가 아주 능하다. 배우들을 처음 만나면 그저 자신에 대해 말해보라고 청한다. 바로 지금처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거다. 오디션을 준비하고 왔던 이들은 처음에 당황스러워하기도 한다. KP 빌은 연기에 대한 디렉션을 하지 않는다. 대본도 없다.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려주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감정적인 맥락을 공유한다.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모든 것은 배우에게 달렸다. '도치된 탄생'에서 함께 작업한 노먼 스콧(Norman Scott)은 정말 훌륭한 배우였다. 차가운 물을 뒤집어 썼으니 연기가 아니라 실제 반응이었을 지도 모르겠지만(웃음).

초기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 중 하나가 '물'이다 BV 여섯 살 때 삼촌과 함께 호수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진 경험이 있다. 호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곳에 푸른빛의 아름다운

1. 도치된 탄생 (Inverted Birth), 2014  
2.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에 선보인 '순교자(흙, 공기, 불, 물)' 시리즈 중 하나. 인간의 불굴의 의지, 끈기, 인내, 희생을 말하고 있다. 물의 순교자들 (Water Martyr), 2014  
3. 조우(The Encounters), 2012, 비디오/사운드 설치







1.

세계가 있었다. 그 세계를 계속 보고 싶어  
서 나를 구하려 뛰어든 삼촌 손을 자꾸 밀  
쳐냈다. 그때의 경험이 내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항상 그 세계를 생각하며 돌아가고  
싶다고 느낀다. 아마 내 마음속에 있는 세  
상일 것이다. KP 빌의 작품은 탄생과 죽음,  
부활 등 생의 순환을 다루는데, 이런 작품  
속에서 물은 고난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정  
화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 크게 영향받았거나 새로 관심 갖게  
된 예술가들은 BV 요즘 작가들의 작업은

잘 챙겨 보지 못한다. 나의 멘토인 백남준과 피터 캠퍼스(Peter  
Campus; 비디오 아티스트), 데이비드 튜더(David Tudor; 현대음  
악가). 세 사람은 내게 교수님과 같은 존재들이다. 운 좋게 백남준의  
어시스턴트로 일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와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무척 재미있고 에너지 넘치며 아름다운 분이였다. 노인에게나  
청년에게나 똑같이 열린 마음으로 대했다. 자신이 창안한 비디오아  
트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해 줬고.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작업에도 관심이 있다 KP 최근 유튜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미술관에서 5m 높이의 스크린을 마주하  
는 것과 아이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다. 그랑 팔레  
전시 때 큐레이터인 제롬 노트르(Jerome Neutres)가 도록 제작을  
위해 사전에 메일로 프리뷰 영상을 받아봤는데, 나중에 설치된 작  
품을 직접 보고 깜짝 놀라더라. 휴대폰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도시  
와 바다, 동물을 검색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  
간을 들여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디오로 기록해 둔 개인적인 삶의 순간들도 있는지 궁금하다 KP 두  
아들이 어릴 때의 모습을 엄마로서 녹화해 둔 것이 있긴 하다. 사진  
은 기록을 위해 많이 찍는 편이다. 미술에서나 인생에서나 '아카이  
브'가 중요하다. 인생의 중요한 지침 중 하나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  
을 버릴지가 아닐까. 세상은 예전에 훨씬 심플했다. 내가 처음 미국  
에 왔을 때는 달랑 가방 두 개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집과 사무실,  
작업실에 짐이 가득하다(웃음). BV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백남준은 나의 멘토다.  
운 좋게 그의 어시스턴트로  
일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와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무척  
재미있고 에너지 넘치며  
아름다운 분이였다.

쏟아지는 정보들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친다. 무섭고 불안한 현상이  
다. 다들 뭐가 중요한지, 뭘 버려야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더 더' 원  
하기만 한다. 늘어나는 물건과 쓰레기들로 우리의 터전이 플라스틱  
섬이 되고 있다. 결국 먼 훗날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텐  
데, 심히 걱정스럽다.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의 삶은 바쁘고 치열하다.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다. 이런 우리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는 KP 속도를 줄이  
라는 것? 한국이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라는 걸 안다.  
지난해 그랑 팔레에서 열린 전시를 보러온 관람객들이 전시장에서  
평균 한두 시간을 머물렀다고 하더라.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가.  
한국인들에게도 이번 전시가 여유로운 성찰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빌에게 묻고 싶다. 인생의 동반자이자 예술의 조력자인 아내 키라는  
어떤 존재인가 BV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키라는 내가 만난 가장

놀라운 사람 중 하나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재능을 지닌  
동시에 매우 강인하다. 또 탁월한 오거나  
이저(Organizer)다.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사람들을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일을 이뤄낸다. KP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스튜디오 디렉터인  
바비 야블란스키(Bobby Jablonski). 이  
번에도 서울까지 동행해서 작품 설치를  
도왔다. <엘르> 코리아에 이름이 나오면  
그녀가 좋아할 것 같다.

그동안 작품을 통해 탄생과 죽음을 다뤄

왔다. 인생의 끝,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BV 머지않은 시  
간에 이 행성을 떠날 때가 올 거라는 걸 안다. 기차를 타고 '굿바이'  
인사를 해야겠지. 나는 이미 준비돼 있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기  
대된다. 살면서 어느 순간 깨달은 점은, 내 안의 프레임이 굉장히 커  
져 있다는 것. 운이 좋아서 더 많은 날들을 살게 된다면 더 어마어  
마한 프레임을 갖게 될 거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에 두렵지 않다. 유  
한한 현세를 어떻게 살아갈지,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  
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예술이 필요하다. ■

비디오아트와 거장 빌 비올라의 신작들을 선보이는 이번 개인전은  
5월 3일까지 국제갤러리 2관과 3관에서 열린다.



2.

1 빌 비올라와 키라  
페로브. 2 전시장의  
고요한 어둠이 관객들을  
사색으로 안내한다.  
3 바그너의 <트리스탄  
이졸데>를 원작으로 한  
신작 오페라에서 파생한  
작품, 밤의 기도(Night  
Vigil), 2005/2009



3.